

# 차세대DVD 단일규격 결국 '무산'

## 블루레이-HD DVD진영간 통합논의 결렬 기록층 두께 견해차 ... 업계손실 불가피



차세대 DVD 규격통일을 위한 블루레이 진영과 HD DVD 진영간 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3일, 차세대 DVD 표준규격 마련을 위한 소니진영의 블루레이(Blue-Lay)와 도시바 진영의 HD DVD간 그간 협상이 무위로 끝나 결국 타협안을 단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마이니찌 신문 등 외신들이 양 진영간 교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전해 이미 결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용량 확대 등을 겨냥한 차세대 DVD는 소니와 마쓰시타 전기기구 산업이 2002년 2월 '블루레이 디스크' 방식을 내세운 수개월 후인 2002년 후반, 도시바와 NEC 등이 독자포맷인 'HD DVD' 방식을 DVD 포럼에 제안, 이후 양 방식이 대립하는 구도로 이어졌다. 삼성 전자, LG전자 등 국내업체들은 블루레이 진영에 참가하고 있다.

### ◆블루레이 HD DVD 통합 '始發'

이러한 대립이 타협의 물꼬를 튼 것은 지난 3월.

소니 최초로 외국인 CEO로 취임한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사장이 차세대 DVD 기술로 대립중인 자사의 블루레이와 HD DVD와의 규격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스트링거 사장은 3월 24일 일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은 2개의 규격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소니는 HD DVD 진영과 협조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당시 소니 사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미 영화 제작소 및 각종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연합, 업계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소니가 후발 경쟁사들과 공조 하겠다는 의미여서 업계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니 사장의 이러한 '대연정'이 과거 VHS에 대해 베타 방식의 비디오 규격을 주장하다 큰 낭패를 당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1970년대 소니는 VCR(비디오카세트레코더) 표준 관련, 베타맥스방식을, JVC는 VHS방식을 제안했고, 끝내 단일화에는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후 VHS가 대세를 이루면서 소니는 실질적인 패배를 당했다.

소니의 제안을 HD DVD 진영이 받아들임으로써 양 진영간 통합을 위한 발걸음이 본격화됐다.

니혼게이샤이 신문은 4월 21일, 양 진영을 대변하는 소니와 도시바가 '제 3 규격'을 새로 공동개발하는 형태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양사가 의외로 빠르게 표준규격 통일에 뜻을 모은 것은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통일규격을 원하는 등 차세대 영화나 소프트웨어, 기기 보급을 위해 규격 분열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단일 표준이 마련될 경우, 소비자 편리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제품 가격 인하 등을 통한 수요 확대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한 몫 했다.

양사의 전격적인 통합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당시 업계에서는 양사 단일 표준 논의가 빠르면 1, 2개월 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통합 결렬, '예상된 수순'?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결국 '과욕'이었음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양 진영 논의가 무르익어 가던 지난 5월초까지만 해도 '양사가 소니의 블루레이 기술을 근간으로 최종안을 마련중'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흘러나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4월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소니와 도시바 진영은 소니측 광디스크 구조에 도시바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조합시키는 방향으로 표준 규격안을 마련,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는 것.

도시바측은 기본 디스크 구조는 소니에게 양보하지만, 제조 비용 등을 최종 판단,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당시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조짐은 불안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이 보도에 대해 도시바가 바로 "협상은 진행중이지만, 합의된 바는 없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

이후 20여일도 안돼 통합 논의의 결렬설이 흘러나왔다. 마이니찌 신문 등 일본 외신들이 전한 '원점 회귀'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 소니진영측 한 관계자는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면서도 "양 진영 교섭이 백지상태로 되돌아가 향후 냉각 기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그러나 이때부터 양 진영 어느 한쪽의 대폭 양보가 불가능해 결국 2개 규격으로 고착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6월 28일에는 도시바의 신입사장이 "적극적인 통합논의를 재개하자"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윽고 8월 23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양사는 더 이상의 타협안 모색을 단념'했다.

## ◆단일규격 실패, 왜?

양측 협상결렬은 디스크 기록층의 두께(깊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이는 블루레이가 0.1mm인데 비해 HD DVD는 0.6mm라는 데 있다. 이 중 어느 방식이 기본 구조가 되느냐가 근본 해결과제였던 것.

도시바 진영이 "0.6mm가 현재 DVD 생산설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이다"고 주장한 반면, 소니·마쓰시타 진영은 "대용량화를 위해 0.1mm는 필수"라는 주장을 펼친

것. 0.6mm는 기존 DVD와 같은 형태로 기존 생산시설 등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블루레이 진영은 0.1mm로 가야 더 많은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다며 자사 표준을 고집했던 것.

이번 협상 결렬에는 할리우드의 입김이 강하게 좌우됐다는 분석도 나와 눈길을 끈다.

이들 각 진영은 세계 영화업계를 좌지우지하는 할리우드 영화사들을 대상으로 한 쟁탈전을 벌여왔으며, 이 결과 할리우드 역시 양 진영으로 이분화된 상태이다.

이들 영화사들은 각각 지지한 규격으로 소프트웨어 생산에 들어간 상태로 이미 이들이 단일규격을 받아들이기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 표준규격 마련을 마땅치 않아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업계 분석에 따르면, HD DVD 경우, 올해말까지 제품 출시를 약속한 상태로 설계 시작부터 제품 출시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교섭이 길어질수록 시장만 블루레이 진영에 빼앗길 것이라는 판단이 HD DVD 진영을 자극했을 것이란 분석. 블루레이 진영의 대응제품 출시는 2006년으로 예정돼 있다. HD DVD 입장에서 경쟁에 앞서기 위한 제품 선출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양 진영간 단일표준 마련 실패는 예상대로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수요 부진에 따른 기기 제조업체 및 영화사 등 콘텐츠 제작사 등 관련업계 모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결렬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단일표준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양 진영 관계자들의 발언이 여전하다는 점도 이런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한편,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10일 보도에서 HD DVD 진영이 4/4분기 제품출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타 이들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HD DVD 최대 지지자인 타임 워너 산하 워너 홈 비디오(Warner Home Video)조차 단일규격을 지지, 연말 워너 영화를 HD DVD로 릴리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K]

글 | 박영주 기자(모바일타임스)